

석유화학, 1/4분기 영업실적 “최고”

국제유가 급상승에 중국수요 폭증 ... LG화학 영업이익 1663억원 전망

석유화학업계가 고유가 사태와 중국수요 폭증 등의 영향으로 사상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 삼성Atofina, LG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석유화학기업들이 2004년 1/4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4월27일 1/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LG화학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증권은 LG화학이 주력품목인 PVC(Polyvinyl Chloride)과 Acrylate 등의 수출호조에 따른 수익호전으로 1/4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한 1조5511억원, 영업이익은 41% 증가한 166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투자신탁증권도 LG화학의 1/4분기 영업이익이 화학부문 실적 강세로 사상 최대 규모인 1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호남석유화학도 1/4분기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80.1%와 46.4% 늘어난 604억9000억원과 1075억500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잠정 추산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2003년 대규모 외자유치에 성공하면서 외국계 기업으로 새출발한 삼성Atofina는 1/4분기 매출액 6050억원, 영업이익 1014억원, 경상이익 954억원, 순이익 670억원 등으로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으며, LG석유화학도 1/4분기 영업이익 544억원, 경상이익 554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화학저널 2004/04/22>